

# 영호남 4개 대학, 사립대 발전 공동건의안

### 조선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 지속 발전 위해 등록금 불균형 해소·지역인재 확보 정책 등 건의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영남대학교·원광대학교는 최근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공동건의안에 담긴 내용은 지역 사립대학 내실화를 위한 등록금 불균형 해소, 지자체·대학 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지자체 고등교육 지원 확대, 단순 재정 투자 관련 지표 완화 및 각종 평가 단순화, 지역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이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을 비롯한 영호남 4개 대학 총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1

인당 평균등록금이 전체 대학 또는 권역별 평균 등록금 이하인 대학에 한해서는 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해당 예산 배정 때 지역별 대학교 수 또는 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행정력 손실 최소화를 위한 각종 평가 지표 통합 및 단순화, 우수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 재검토 또는 비율 축소, 지역인재가 지방에 남을 수 있는 유인 정책 수립도 당부했다.



왼쪽부터 서길수 영남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박명수 원광대 총장. 지난 16일 동아대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안 채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조선대학교)

영·호남 4개 사립대학은 1998년 12월 최초 협정을 체결한 이후 22년간 교류를 지속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연 1회 총장협의회 주관, 영호남 학생 교

류, 전공별 교원 교류, 부서별 협의회 활성화 등 직원 교류, 나눔봉사활동, 학생 취업캠프, 진신 체육대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희기자

### 동구,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문화행사 '다채'

광주 동구는 독서문화 확산과 동네책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마를 인문산책'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 행복한 책마를 조성사업' 일환으로 이번 '책마를 인문산책'은 책방과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작가, 문학평론가, 예술가 등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인문강연, 북 콘서트 등 주민들이 다양한 책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과 함께 바쁜 생활 속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구, '방구석 필라테스'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방구석 필라테스'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언택트(Untact) '방구석 필라테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든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필라테스 지도자의 강습으로 진행되어 지루함 없이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해 실내운동을 통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화, 목 주2회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동교구 4종(요가매트, 미니짐볼, 요가셔플 및 라텍스밴드)이 지원됐다.

### 남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광주 남구는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차장을 비롯해 자동차 도장시설 등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12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남구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관내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주민 2명과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청에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 북구, 2020년 지역사회 장학학생 153명 선발

광주 북구와 (재)광주북구장학회(이사장 박치영)는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고등학생 78명, 대학생 75명 등 153명을 선발해 고등학생 50만 원, 전문대학생 100만 원, 종합대학생 150만 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2020년 1학기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 중 과반수 이상 과목 2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7점 이상(4.3만점은 3.5점)이어야 한다.

저소득 장학생은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이 2020년 중위소득 65% 이하의 세대이며 특히 장학생은 예술·체육 분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성적이 있어야 한다. 특별 장학생은 각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광산구, 하남2지구 상인들, '하2해피페스타' 할인 행사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상인회(회장 박헌기)가 다음달 15일까지 '하2해피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 블랙프라이데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하남2지구 골목상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할인 이벤트이며, 상인들은 상가 이용 손님들에게 복권형 쿠폰을 나눠줘 결제 금액의 10~50%를 할인해주고, 음식·주류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임형택기자

## 신민호 도의원,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강력요청

### 3개국·정무부지사 배치요구



해서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민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 수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

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남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도청이 지리적으로 전남의 한쪽에 치우쳐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진주에 서부본부장 생긴 후 3국 3직속기관 4사업소를 배치하였고 서부본부장에도 정무부지사를 변경 배치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에는 동부지역본부가 있지만 전남의 경제와 관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역부족”이라며 “환경산림국 외에도 2개 이상의 국을 더 배치하고 동부본부장에 정무부지사를 격상 배치하여 기능과 조직을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순천 지역에 코로나가 확

산하던 시기,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가 필요했지만 동부지역에는 검사장비가 없어 남악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을 확대 개편하여 감염병 예방과 동부권 악취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동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전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지역본부가 반드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시, 11대 대표산업 상용화 시범사업 성과

### 7곳 선정 기술개발·시제품 제작·납품까지 패키지 지원

광주시가 추진 중인 11대 대표산업 지역수요 연계 유망 품목 상용화지원 시범사업이 대기업 납품과 해외 수출 계약이 예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와 연계해 생체의료산업과 스마트가전사업 분야의 유망품목을 발굴,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추경 예산으로 6억원을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지역 내 조달률을 높이고 지역의 공급망 확충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1대 대표산업 중 지역 지원기관과 네트워크가 용이하고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가전과 생체 의료 사업분야에 모집 신청을 받아 가전사업분야에는 ㈜그린테크 등 4개사, 생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디엑스엠 등 3개사를 각각 선

정했다.

업체별로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지원해 기술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성능 확인, 납품까지 상용화를 위한 모든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했다.

특히 전담 서포터즈를 운영해 기업진단과 상용화전략 수립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위해 매일 해당 기업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린테크가 냉장고용 열교환기 모듈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수요자인 삼성전자에 9월 3000대 납품

을 시작으로 월 7만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스타코퍼레이션㈜는 대용량 김치냉장고로의 증발기 확대 적용 개발 지원을 통해 수요처인 유니아를 대상으로 9월 1만8000대 납품을 시작으로, 월 2만대 규모로 지속적인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디엑스엠은 치과용 믹싱팁 생물학적 시험 지원을 통해 이탈리아 한 회사와 11월 중 3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예상되며, 나머지 회사들도 품질검증, 입사 테스트 결과 등의 단계를 거쳐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소 동일사항

1. 발전설비용량 : 99.45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 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6.~2020.10.2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발전사업신청자	7.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영남 태양광발전소	유영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sup>2</sup> /9,000m <sup>2</sup> )	
2. 문수2호 태양광발전소	허순금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418m <sup>2</sup> /9,000m <sup>2</sup> )	
3. 재환 태양광발전소	이재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26m <sup>2</sup> /9,000m <sup>2</sup> )	
4. 문수1호 태양광발전소	김중현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sup>2</sup> /9,000m <sup>2</sup> )	
5. 금최2호 태양광발전소	박금희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82m <sup>2</sup> /9,000m <sup>2</sup> )	
6. 사남2호 태양광발전소	최사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m <sup>2</sup> /9,000m <sup>2</sup> )	
7. 화영2호 태양광발전소	유영성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m <sup>2</sup> /9,000m <sup>2</sup> )	
8. 화영1호 태양광발전소	함미경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102m <sup>2</sup> /9,000m <sup>2</sup> )	
9. 현주 태양광발전소	송현주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615-2(917m <sup>2</sup> /9,881m <sup>2</sup>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복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호남신문과 함께할 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곡성·해남

문의전화 (062)229-6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천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